

성과중심 원조관리 협의 그룹 회의 결과

(JVMfDR; Joint Venture on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2007.10.16)

2000년 UN 총회에서 천년개발목표(MDGs)가 발표된 이래로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도 원조의 양적 제고를 위한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원조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로마선언 및 파리선언 등이 좋은 예라할 수 있다. 특히 파리선언의 경우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이해공약 및 지표가 생성되어 현재 가장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파리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원조 공여국(기관) 및 수원국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아래 소개되는 표제 전문은 파리선언의 4,5번째 원칙인 원조관리와 공동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그룹의 회의 결과로, 원조성과관리에 대한 선진 공여국과 원조기관들의 움직임을 고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정리 : 정책연구실]

I. 핵심 요지

-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 공여국 원조기관들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조직 관리, 인력 충원, 정책 및 절차, 예산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를 강조한 연구 작업을 계속 추진기로 함
 - 고위급 차원의 정책 선언 표명, 특별 보너스 지급 및 우수직원상 수여, 현장 직원에 대한 좀 더 많은 권한 부여, 본부 및 현장 직원간의 정규적 인사 이동 등이 제안됨
- “다자기구 성과 평가 네트워크(MOPAN: Multi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는 선진 공여국들의 기존 평가도구들을 분석, 향후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좀더 통일화된 평가 방식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동 보고서를 OECD 회원국 및 수원국 차원에서 공유키로 함. 다만, 2008년 아크라 고위급 포럼내 의제로서의 논의 및 양자 원조기관 평가에 대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키로 함

II. 상세 내용

1. JVMfDR 설립 목적(2003년)

-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PD)”중 성과중심의 원조 관리(MfDR) 및 공동 책임(Mutual accountability)의 이행 지원이 명시됨에 따라 동 목표 이행차원에서 설립
 - 성과 지향적 사고(results thinking)를 파리 선언의 주요 이행 목표와 보다 나은 연계(better link) 추진
- 상기관련 주요 모범 사례 발굴, 개념적 명확화, 기술적 가이드라인 및 원칙 개발
 - 파리 선언(PD)의 성과지표 11&12(PD Indicator of Progress 11&12) 관련

2. 주요 계획 및 작업 진행

가. 개발 성과관리에 대한 개념 명확화 및 기술적 가이드 제공

1) 개념의 명확화 작업 (PD indicator 11)

- 개발협력의 효과 제고 차원에서 MfDR이 중요하지만, 실제 이행 차원에서는 큰 갭이 존재함. 이에 따라 기존 발간된 “DAC 평가 및 성과에 기초한 관리의 주요 개념집 (Glossary)”의 부록(addendum)으로

“Conceptual Clarity and Technical Guidance”마련 추진

2) 국가능력 평가도구(country capacity assessment tool) (PD 46조)

- 국가능력 평가도구 개발 태스크 팀 회의(6.12, 9.6, 워싱턴) 등을 통해 수원국(pilot countries)에 대한 국가능력 평가도구 마련 추진
 -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package of tools”로서 기존의 평가 도구 등을 포함, 인용, 동일한 5개 주제별(리더십과 책임, 모니터링과 평가, 상호 책임 및 파트너십, 계획 및 예산, 통계) 체계하에 조합

나. 원조 성과에 대한 국가/국제기구 차원에서의 공동 책임 제고

- 현재 44% 수원국만이 공동 평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바, JVMfDR 이 국가 수준/국제기구 차원의 공동 책임(mutual accountability)의 연구 추진
 - 일본은 국제기구 차원의 공동 책임 연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동 연구의 진행 여부는 11월 원조효과 작업반에서 결정기로 함

다. 성과에 대한 원조 기관의 효율성 제고

- 9개 DAC 회원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다자기구 성과 평가 네트워크 (MOPAN)는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 지원하에, 선진 공여국들의 기존 평가도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다자기구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좀더 조화된 평가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동 보고서를 OECD 회원국 및 수원국 차원에서 공유하되, 2008년 아크라 고위급 포럼에서의 논의 및 양자 원조기관 평가에 대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함
 - 미국은 MOPAN의 회원국임 아닌 점을 감안, 동 작업을 DAC 차원에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함(일본 동조)
-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 공여국 원조기관들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2007.3월 원조효과작업반에서 “원조기관들의 조화 및 원조 일치를 위한 인센티브 모범 사례 노트 초안” 논의 및 JVMfDR이 범위를 확대하여 담당기로 합의함(영국과 세계은행이 재원을 제공)
 - 조직 관리, 인력 충원, 정책 및 절차 및 예산 차원에서의 인센티브(고위급 차원의

정책 선언 표명, 특별 보너스 수당 지급 및 우수직원상 수여, 현장 직원에 대한 권한 부여, 본부 및 현장 직원간의 정규적 이동을 강조한 연구 작업을 계속 추진키로 함

- 다만 너무 작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유보적인 입장임

라. 공동 학습 및 상호 연락

- 학습 공동체
(CoPs: Communities of Practice)
 -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남미 아프리카 수원국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소개
- 성과 중심의 원조 사례를 소개한 Source-book 제3판 출판 예정임

III. 참고 사항

- 금번 회의의 참석자는 대부분 선진공여국(발표, 연구 작업 및 재원 제 공은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이 담당)이며, 개도국 중 몽골(아노드은행)이 참석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